

퓨어스토리지, 종합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스토리지 공급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속도 3 배 향상

- 운영 데이터 복제 시간 기존 10 시간에서 1 시간으로 단축
-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FlashArray M 시리즈로 전체 스토리지 교체
- 3:1의 데이터 중복제거 및 압축률, 상면 공간 및 소비 전력량 약 4 배 감소

2017년 12월 22일—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올플래시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http://www.purestorage.com/kr/>, 이사장 배성호)가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FnGuide <http://www.fnguide.com>, 대표 김군호)에 자사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M(FlashArray//M)시리즈를 공급해, 기존 레거시 스토리지 환경을 효율적으로 혁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M 도입을 통해 에프앤가이드는 전체 스토리지를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교체하며 데이터 운영 환경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 데이터 복제 중 소스와 타겟 스토리지 간에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데이터 복제 시간을 기존 10 시간에서 1 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에프앤가이드는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M 도입을 통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읽기와 쓰기 성능 모두 약 3 배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올플래시 스토리지 특징인 99.9999% 가용성을 확보했다. 또한 3:1의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을 통해 데이터센터 상면 공간 및 소비 전력량이 약 4 배 감소하여 업무 운영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에프앤가이드 데이터공학팀 황관홍 선임연구원은 “10 시간 가량 소요되던 작업 시간으로 인해 주말에 이루어지던 개발 데이터 동기화 과정이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 M 시리즈 도입으로 스냅샷 및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지원 받아 1 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고 전했다.

퓨어스토리지 배성호 이사장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의 경계가 날로 확장되는 가운데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토리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손쉬운 운영과 효율성으로 고객이 진정한 비즈니스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에프앤가이드 사례를 계기로 금융 영역에서도 퓨어스토리지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퓨어스토리지의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은 플래시어레이(FlashArray),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 및 시스코와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플래시스택(FlashStack)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우드로 연결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어 어디서든 모바일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하고 에버그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영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을 받는다. 퓨어스토리지의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올플래시 기반 기술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영구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에서 83.7점을 받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 업체, 소비자 웹,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부, 의료, 제조, 미디어, 소매 및 통신 등 점점 확장되어 가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포함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